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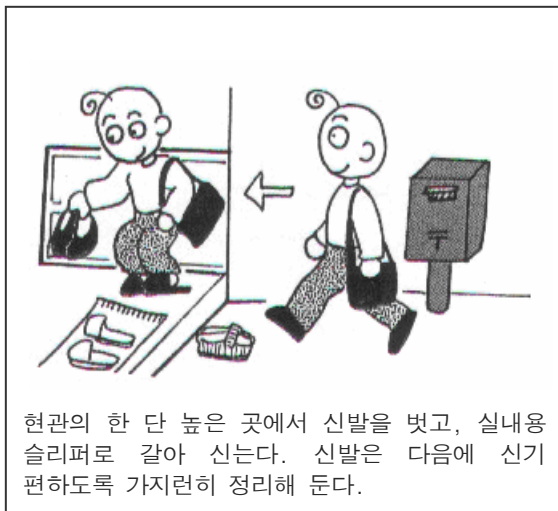
1. 일본 주택의 특징



●일본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일본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이는, 습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기후에서는 신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 안에 더러운 것을 들이지 않으려는 예전부터의 습관이다. 현재는 대부분이 포장도로이기때문에 예전만큼 더러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신발을 벗는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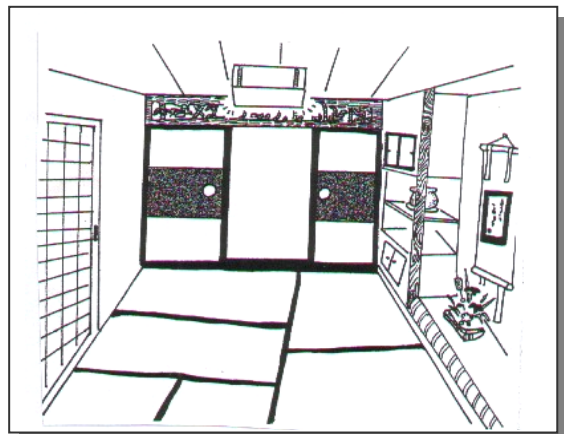
기숙사에서는 대개의 경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식당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다. 바깥에서 신는 신발과는 별도로 각자 준비한다. 또, 벗은 신발은 각자의 신발장이나 방에 보관한다.



●다다미방에 들어갈 때에는 슬리퍼를 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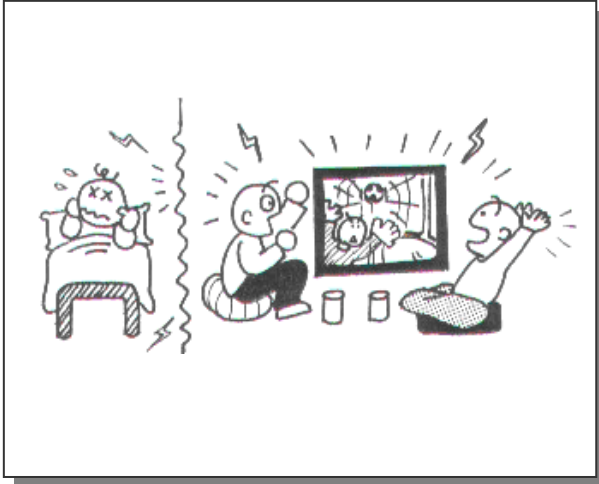
다다미방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슬리퍼를 벗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주택이라도 순수하게 다다미 방만 있는 집은 드물며, 서양식 방도 갖추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방이나 거실에서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주택은 좁다.

도쿄 주변 도심부의 주택사정은 일본인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좁고 집세가 비싼 것은 당연하며, 대개는 방음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서로 참는 것이 보통이다.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생활잡음은 어쩔 수 없지만, 큰 소음이 되면 문제가 된다.

우선 자기 자신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도저히 소음을 견딜 수 없을 때나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기숙사 관리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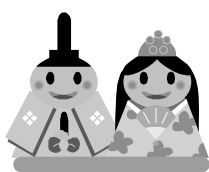
●방도 공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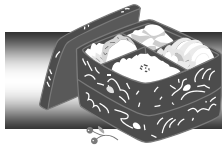
일본에서 방을 빌렸다가 비워줄 때에는 처음 입주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해 놓는 것이 상식이다. 기숙사의 방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용 시설이다. 다음에 들어와 살게 될 사람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더러워지지 않게 신경을 쓰도록 한다.

또, 방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집 주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방을 비워줄 때에도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원상태로 돌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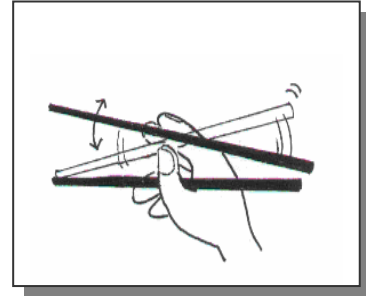


2. 식사예절

일본의 식사예절은,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젓가락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젓가락 사용을 중시 한다. 밥, 국, 생선이나 고기 요리 등, 거의 모든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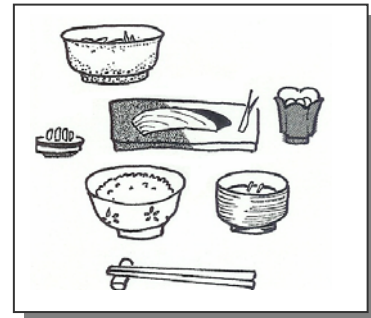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아래쪽의 젓가락을 약지와 엄지로 단단히 고정 시키고, 위쪽 젓가락을 검지와 중지, 엄지로 가볍게 쥔다. 음식을 집을 때에는 중지와 검지로 젓가락을 움직인다. 위쪽 젓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



●기억해 두어야 할 식사 매너

-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에는 반드시 젓가락 받침에 놓는다. 젓가락 받침이 없을 때는 앞 접시 등에 가지런히 둔다.
- ★그릇을 집을 때에는 젓가락을 내려 놓는다.
- ★밥그릇은 반드시 손으로 들고 먹는다.
(접시는 그대로 놓아 둔다)
- ★국은 그릇에 입을 대고 마신다.
- ★한 접시씩 먹어 치우지 말고, 밥과 반찬이 동시에 끝나도록 번갈아 가며 먹는다.



●젓가락 사용시 피해야 할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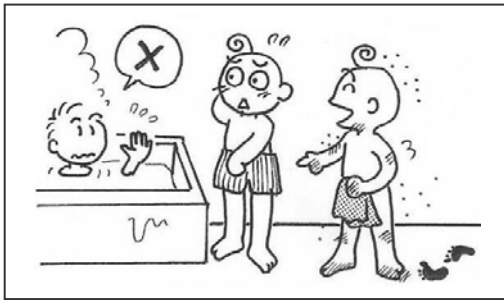
 橋渡し(하시와타시)	 立て箸(타테바시)	 指し箸(사시바시)	 迷い箸(마요이바시)
젓가락만으로 음식을 주고 받는 것 (사신을 화장한 후 뼈를 주울 때나 하는 행동)	밥에 젓가락을 꽂아 세우는 것 (사신의 머리맡에 제를 올릴 때 이렇게 한다.)	젓가락을 음식에 꽂아서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망설이며 젓가락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
 ねぶり箸(네부리바시)	 探り箸(사구리바시)	 寄せ箸(요세바시)	 渡し箸(와타시바시)
젓가락을 입에 물고 핏는 것	휘저어서 건 더기만 골라먹는 것	젓가락으로 그릇을 끌어 당기는 것	젓가락을 그릇 위에 걸쳐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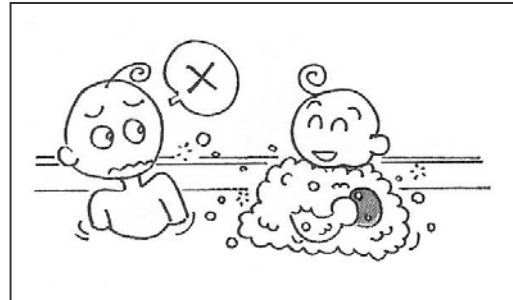
3. 목욕탕 이용시의 매너

일본에서는 큰 욕조에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 목욕하는 습관이 있다. 일본의 목욕탕은 몸을 씻는 것 뿐만 아니라, 탕 속에서 느긋하게 대화를 즐기며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의 기본 예절을 참고하여 일본의 목욕탕을 즐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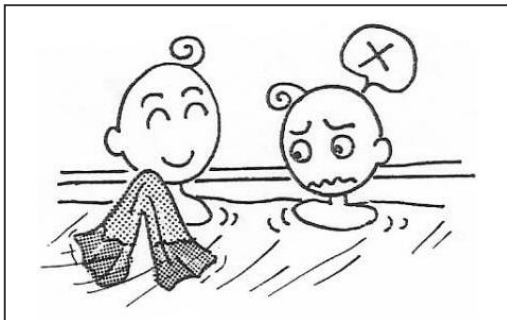
●기억해 두어야 할 목욕탕 이용시의 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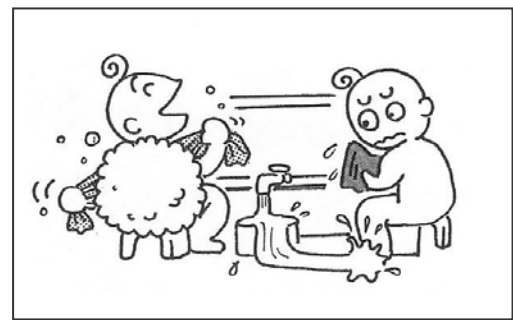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탕에 들어간다.



탕 안에서 몸을 씻거나 비누거품을 내지 않는다.



수건을 탕 안에 넣지 않는다.



물을 틀어놓은 채로 씻지 않는다.



목욕탕 안에서 빨래를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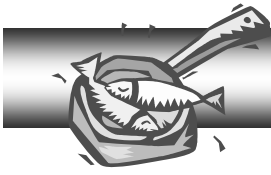


목욕을 마친 후에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고 탈의실로 나온다.



◆주의

- 머리가 긴 사람은 고무줄 등으로 묶어, 머리카락이 탕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4. 주방 사용방법

일본의 주방은 ‘삶고, 굽는’ 일본인의 식문화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있다.

●주방의 기름때

대부분의 목조 아파트의 주방은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에는 부적합한 구조이다. 기름이 주방의 벽이나 조리대에 튀어 기름때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도록 하자.

●환기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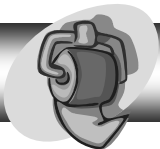
대개의 일본인은 주방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집주인은, 이사간 사람이 남긴 「주방의 기름때」 제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환기에 신경쓰도록 하자.

●바로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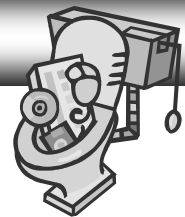
여기저기에 튀어 있는 기름자국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산화되어 끈적한 「기름때」가 된다. 조리할 때마다 바로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알루미늄 호일로 덮는다.

조리할 때마다 닦아내는 것이 귀찮은 사람은 알루미늄 호일을 조리대나 벽에 붙여두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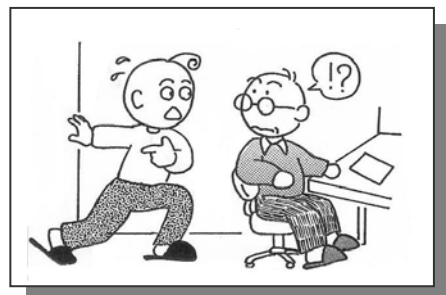


5. 화장실 사용시의 에티켓



◆주의!!

- 사용한 후에는 물을 내린다.(한번으로 충분! 물 낭비에 주의)
- 사용한 화장지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 화장지 이외의 쓰레기는 절대 변기에 버리지 않는다.
- 물이 흘러 넘치거나 막혀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즉시 관리인에게 연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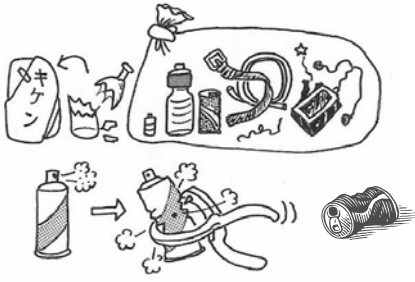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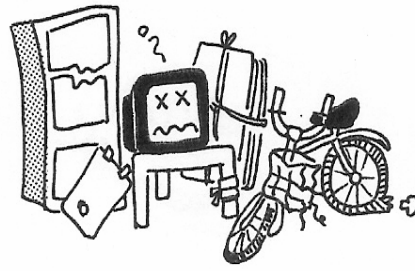


6. 쓰레기의 처리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분별하여, 정해진 일시·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하지 않는다. 쓰레기의 분별방법과 수거일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집주인 또는 관리인에게 확인 하도록 하자.

● 기본적인 쓰레기 분별법(가연 · 불연 · 대형쓰레기)



<p>[가연쓰레기]</p> 	<p>생선 · 야채 등, 음식찌꺼기. 종이류, 담배꽂초, 생리용품, 의류 등.</p> <p>도쿄 23 구가 지정하는 반투명 비닐봉투 (탄산칼슘함유)에 넣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입구를 묶어서 버리자.</p>
<p>[불연쓰레기]</p> 	<p>타지 않는 쓰레기, 비닐, 플라스틱, 금속, 유리, 고무, 가죽, 칼날, 바늘, 전구, 형광등, 스프레이 캔 등.</p> <p><u>위험하지 않은</u> 것은 내용물이 잘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버리자. <u>바늘</u>은 병이나 캔에 넣어 뚜껑을 닫아서 버리자. <u>전구나 유리파편</u> 등은 종이에 싸서 「危険」이라고 써서 버리자. 그 밖에 <u>스프레이 캔</u>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다 사용한 후에 버리자. 만약 다 사용하지 않은 채 버릴 경우에는 못으로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 후에 버리자.</p>
<p>[대형쓰레기]</p> 	<p>가정에서 사용한 가구, 가전제품(※가전 리사이클법 대상품은 제외) 등, 30 cm 이상 1.8m 이하의 쓰레기. 유료 · 신청제.</p> <p>(수수료:이불-약 200 엔, 자전거-약 500 엔, 전자렌지-약 200 엔, 대형오디오기기-약 1400 엔)</p> <p>※ 가전리사이클법 대상의 에어컨, 텔레비전(브라운관), 냉장고, 세탁기는 구입처, 또는 가전 리사이클 접수센터에서 처분을 신청한다.(유료)</p>

◆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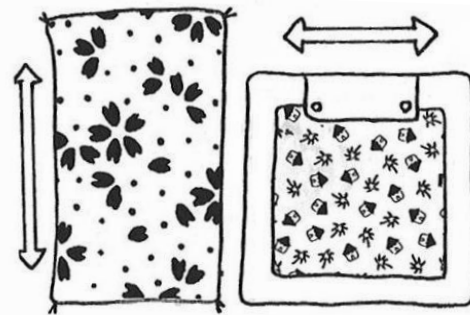
자원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헌 종이(신문, 잡지, 종이박스), 캔(알루미늄, 스틸), 병, PT 병, 종이팩, 건전지 등을 별도로 수집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확인하자.



7. 침구 사용법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아직은 후통(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주류이다.

기숙사에는 침대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다미로 된 게스트 룸이나 여관 등에 숙박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통(이불) 사용법을 소개한다.



しきぶとん(요)

かけぶとん(이불)

●이불 펴는 법



먼저, 요를 편다.



요 위에 시트를 씌운다.
남은 부분은 요 밑으로
넣는다.



요 위에 (추울 때는 모포를
사이에 넣고) 이불을 편
다음, 베개를 놓는다.

●이불 손질

일본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가끔 이불을 햇볕과 바람에 내놓아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불과 베개를 건조시켜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토막 상식

다다미방에 달려있는 「오시이레(벽장)」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수납하는 곳. 다다미방은 ①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어 벽장에 넣는다. ②낮에는 상을 펴서 식탁으로 사용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 된다. ③밤에는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어 바닥에 깔면 침실이 된다. 다다미 방이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결은, 바로 이 벽장과 이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 꼭 알아두어야 할 매너

●노상흡연,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금물!

도쿄의 각 구에서는 독자적 조례를 제정하여, 빈 캔이나 담배꽂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나 노상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지역인 「노상금연지구」에서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멈춰서거나 자리에 앉아 피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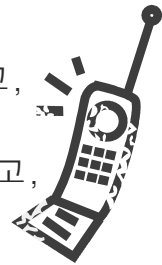


◆도쿄도에서 노상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 (2006 년 현재)

치요다구, 스기나미구, 오오타구, 시나가와구, 코가네이시, 이타바시구, 츄오구, 세타가야구, 신주쿠구 등. 또한 사이타마, 치바에도 금지 지역이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 신칸센이나 전철, 버스 등의 대중 교통에서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통화는 삼가한다.
- 레스토랑이나 호텔 로비 등의 조용한 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것이 매너.
- 극장이나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는 전원을 끈다.
-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원을 끈다.
- 보행 중이나 자전거 이용 중의 휴대전화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단 안전한 장소에 멈추어 선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전화를 걸 때에는...

①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물어 확인하는 것은 실례!

반드시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 확인할 것.

예) もしも、田中さんのお宅ですか? (여보세요, 다나카씨 댁입니까?)

②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자신을 밝힌다.

느닷없이 “○○씨 부탁드립니다” 는 실례. 자신을 밝힐 때에는 천천히, 상대가 알기 쉽도록 발음하는 것이 좋다. “저는 한국의...” 라고 덧붙이면 더 정중.

③상대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하며 끊지 말고, 메모를 남기자.

예) 電話があったことをお伝えください.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시시오.)

이 때 상대방이 “전화번호는요?” 라고 물어 왔을 경우,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일단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④자동응답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를 녹음한다. 말없이 끊는 것은 실례.